

인성(人性)이 먼저다

대개의 사람들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知能指數))테스트를 받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 IQ(지능지수)테스트라는 것이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테스트였다. 물론 내용에서는 방향을 묻거나, 추리력을 테스트 하고, 계산을 하고, 또한 길을 따라 똑같이 그려나가는 문제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IQ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었다.

IQ와 EQ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맥을 쌓아야 성공한다고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성적지상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다. 공부만 잘하면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도 우수한 인재로 대우받는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고 무시당하게 되어 매사에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든 기를 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역시 우수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만 좋고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많은 부작용을 양성하게 되어 일명 골치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이로 인하여 EQ[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感性指數)]가 강조되게 되었다. 감성지수란 충동이나 불안과 분노와 같은 자극에서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다. 점차 우리 사회는 IQ가 높은 사람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인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탄탄한 인맥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성공가도(成功街道)를 달리게 된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기 때



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다

반면 능력은 있으나 인성이 좋지 못한 사람 곁에는 웬지 가기가 싫다. 그런 사람이 상사인 경우에는 “이런 것도 못해!”라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이고 그런 사람이 부하 직원 일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 안하고 꼭 자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일을 왜 그렇게 했나?”고 나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참 대답하시네요”라고 항변한다.

진정으로 직장이나 조직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우수한 인재는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다. 재능은 있으나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업무 현장에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인성이 먼저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능이 우수해도 인성이 부족하면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얼마나 오래 갈 사람인가? 끝까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바로 인간성에 그 사람의 미래가 걸려 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마음먹은 대로 피가 변한다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이다. 피가 영이요, 생명이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말속에서도 있다. “인간은 생각이 있는 동물이고요 영적 동물이다.”라고 했듯이 생각의 움직임이 바로 영의 작용이요, 피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마음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마음이다. 피 자체가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형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근육운동, 전신스트레칭~

근육은 건강한 생명의 자산이다. 몸 지탱, 체온유지, 신진대사가 근육의 역할이다. 근육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 및 치매 위험율이 높다고 한다. 60대부터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근력,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한다. 단백질, 칼슘과 함께 비타민B, D도

챙기고, 쪽쪽 눌러주는 스트레칭으로 도파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활기차고 건강하게 봄과 여름 더위를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요?

서서 전신 스트레칭~

동작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선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최대한 위로 올린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①

동작②: 두 다리를 어깨너비 1.5배로 확장하고 선다. 두 손을 깎지끼고 올려 천천히 옆으로 내린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②

동작③: 바로 선 자세에서 양다리를 교차시킨다. 양손은 깎지를 낀 채 기지개를 켜듯 머리 위로 높이 올린다. 그 다음 앞쪽에 위치한 다리 방향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며 내려 준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③

동작④: 양다리를 앞뒤로 확장하고 앞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양손은 깎지끼고 머리 위로 높이 올린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④

하늘소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면 영생의 길 또한 알 수 없느니라



각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73회

寺畚歌(사답가)

寺畚七斗天農(사답칠두천농)이니 是呼農夫(시호농부)때만난네 水源長遠天田農(수원장원천천농)에 天牛耕田田(천우경전전)일세 文武星名(문무성명)이요 天上水源靈田(천상수원영전)이라 理氣妙理心覺(이기묘리심각)하니 寺畚七斗(사답칠두)아닌가 天牛不知靈田(천우부지영전)이면 永生之路又不知(영생지로우부지)라

사답칠두(寺畚七斗=북두칠성)는 하늘의 농사(天農)이니 농부(정도령)가 때를 만났네. 생명수의 근원이 아주 먼 하늘의 심심 농사는 하늘소(天牛=하나님)가 밭(田田=陽田, 陰田)을 가는 것일세. 문무성(文武星=북두칠성)을 이름이요 천상의 생명수를 근원으로 하는 영적인 밭이니라. 이(靈)와 기(氣)의 묘한 이치를 마음 깊이 깨닫고 보니 사답칠두(寺畚七斗)가 바로 이기(理氣)로 짓는 농사 아닌가? 하늘소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면 영생의 길 또한 알 수 없느니라.

鷄鳴聲(계명성)

三鳥之聲(삼조자성)들려온다 잠깨어서 役事(역사)하세 鷄鳴聲數數聲(조명성수수성)에 일할생(일할)걱(걱)정이라 玄武鳥初聲時(현무조초성시)에 鳥頭白(조두백)이 未容髮(미용발)이요 靑龍鳥再鳴(청룡조재명)하니 江山留支壯觀(강산유지장관)이요 朱雀之鳥三鳴(주작조삼차명) 昏衢長夜開東來(혼구장야개동래)라 鷄鳴無時未久開東(계명무시미구개동) 日竿三(일간삼)이다되였네

夢覺時(몽각시)라 人民(인민)들이 農事(농사)를 不失(부실)하니 日語(일어)져저 田耕(전경)하고 英學(영학)하게 播種(마종)하고 支學(지학)하게 除草(제초)하야 霜雪時(상설시)에 秋收(추수)하소 馬枋兒只(마방아지)나오신다 蔑視(멸시)말고 잘모시어라.

새(닭)우는 소리가 세 번 들려오느니라. 잠 깨어서 하늘의 일(천지 공사)을 하세. 닭 우는 소리가 자자자 들리니 일할 생각 걱정이라. 첫 번째 우는 현무조(玄武鳥)는 머리에 털이 나지 않음이요. 즉 계유(癸酉=현무조 1933년)년에는 일제 암흑기로서 새로운 진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청룡조(靑龍鳥=을유 1945년)가 울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유지하니 장관이로다. 세 번째 주작지조(朱雀之鳥=정유 1957년)가 우니 어둠과 두려운 가나긴 밤이 지나가고 동녘이 밝아오느니라.

닭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니 오래지 않아 동방 나라 한국 땅이 밝아와서 해가 거의 세 발 장대 위(日竿三 일간삼)에 떠오르네.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니 백성들이! 농사짓는 때를 놓치면 아니 되니라. 일어(日語)로 밭을 갈고(세상 사람들이 일어 공부를 많이 하는 때는 밭가는 시기로 본다.) 영어 공부하는 것으로 씨를 뿌려 심고(세상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데 힘쓰는 시기를 영적으로 파종하는 시기이다.) 중국어 공부하는 것으로 제조하여(세상 사람들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때를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서리나 눈이 내릴 즈음(霜降상강~小雪소설)에 알곡을 추수하소. 상강(霜

降)-소설(小雪)은 술(戌) 해(亥)에 들어 있다(戌亥人多死). 서리 내리기 바로 전에 추수하는 법이다(申酉兵事起). 마방아지(馬枋兒只=마구간 아기) 즉 구세주 정도령이 나오신다. 멸시(蔑視) 말고 잘 모시어라. 신유(申酉)에 금(金)의 기운이 들어와서 추수를 하고 술해(戌亥)에 숙살지기로 다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다.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은 술(戌)에 있고 눈(雪)은 해(亥=입동 소설)에 내린다.

大聖紀元二九時(대성기원이구시)에 走靑林(주정림)에 土土孫(토토손)을 運有其運時有其時(운유기운시유기시) 不失此時(불실차시)섬마섬마 衆人寶金守保財物(중인보금수보재물) 雲霧中天一脫世(운무중천일탈세)로 活人積德(활인적덕)하러하나 主人(주인)을라 亞亞亞(아아아) 불아아아 余四正(여사정)이 餘三數(여삼수)로 彼此一般合意事(彼此일합의사)를 時至不知(시지부지)할터인가 天眞覺道理(천진각도리) 천진난만도리도리 嗚呼時運(마호시운)늦어간다 蛇奪人心(사탈인심) 彌勒猴(미륵불)을 不覺(불각)인가 頂上血汗(정상혈한) 支離歲月(지리세월)갈다마소

대성인의 기원(紀元)은 삼팔갑을목(三八甲乙木)이니 대성인이 출현할 때에는(二九이구는 十八십팔이요 十八십

팔은 木의 파자) 동방의 청림도사(靑林道師=정도령)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리라. 운에는 다 그 운이 있고 때도 다 그때가 있는 법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기 위해 엄마(정도령)가 부를 적에 빨리 오소.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와 재물을 지키고 간직하려 하다가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하늘이 일시에 벗겨지듯 세상이 홀연히 변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활인적덕(活人積德) 하러하나 주인공(심승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내(하나님) 사정으로 말하면 정도령의 운이 오기를 일각(一刻)이 여삼추(여삼추)같이 기다려 왔는데 삼위일체 삼인동행의 삼수(三數)로써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로 합의(약속)한 일을 때가 되었는데도 모른다고 할 터인가?

천진난만(天真爛漫) 즉 조금도 꾸밈이 없이 순진하고 참된 것이 도의 이치라는 것을 잊었는가? 아, 슬프다! 시운(時運)이 늦어간다. 사탄 즉 독사 같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생 미륵불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머리 꼭대기부터 온 몸을 피땀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곤지곤지(昆指昆指)하면서 키웠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듯 가나긴 세월이라고 지루해하지 마소. 진사성인이 오시는 운과 그날은 언제인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이 되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63)

참진리 | 종교의 목적 전도 문답 [46]

질문: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종교는 신에 대한 것이며 그 목적인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은 영이요, 영은 마음이므로 종교는 천국을 이룬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영원히 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므로 신의 학문이 곧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란 것은 곧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므로 마음속에 종교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학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질문: 종교의 목적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까. 그런데 종교의 목적은 진리 구현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종교의 근본목적은 진리 구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와야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만 짓는다고 종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마음이므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을 이루어야 종교가 되는 것은 것인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리라고 누

가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구체적으로 말해서 죽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참 종교인 것입니다.
질문: 영원히 사는 마음이 종교라면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성경이나 불경에서 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느냐 하면 '나'라는 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만 하게 되면 피가 썩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버려라라는 말은 내 마음을 버려라라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행치 말라는 말이고,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수박겉핥기로 성경과 불경을 읽으면서 도를 뉘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마음을 가진 자는 '나와 더불어 평생을 투쟁해서 '나'를 이긴 자입니다. 나를 완전히 이겼으므로 죽지 않는 비결을 압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요, 영생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므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려야 죽을 수 없고 늙으려야 늙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합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본부제단 032-343-9981~2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